

We walk by faith (2 Corinthians 5. v7).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이다. (고린도후서5:7)

Paul says,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It's a great statement. It seems to say so much.

But isn't this actually the problem with Christianity, though? Is Christianity unhinged from reality? Don't we all live with our heads in the clouds? And don't you feel it personally, when someone says to you, prove it. Prove your Christian faith isn't just a fairy tale. We already feel vulnerable to the charge, and then Paul seems to just come out and say it - Christianity is disconnected from reality. We close our eyes and hope for the best.

Let's look at what he says in three parts. First, the walking by sight part, then the walking by faith part, and then some concluding implications.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이로라"라고 합니다. 이는 굉장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로 기독교 문제가 아닐까요? 이는 기독교가 현실과 단절된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구름 위를 떠돌듯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상상속의 옛날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항변에 당혹스러워하기에, 바울은 곧장 나아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 기독교가 현실과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감고 최고의 것들을 소망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 면에서 살펴봅시다. 첫째로는 보이는 것을 따르는 부분과, 믿음으로 따르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결론적인 적용 점을 살펴봅시다.

1. WE DO NOT WALK BY SIGHT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First, we do not walk by sight. What does this mean? Does this mean, we walk with our eyes closed? What happens when you walk around with your eyes closed? Did you drive here with your eyes closed? How could Paul admit to this? What does He mean by this? It's a shocking statement. In our day and age, we exalt walking by sight. We're scientific, aren't we. We like the facts. The atheistic scientist, at least, deals only with reality - the things you can see and feel and touch. The scientist deals in that which is quantifiable, measurable. The scientist is the empiricist, if you will allow me to use that word. The empiricist, which means that their work is based on observation and experiments. They can tell you how many hydrogen atoms there are in a molecule of water. They can tell you what the force of gravity is. They've examined, and weighed, and measured, the things round about us. And we're glad that they have. Because we have as a result advanced medical science, and anaesthetics, and computers and l pads and so on.

첫째,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눈을 감고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눈을 감은 채 생활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눈을 감고 오늘 여기까지 운전하셨습니까? 바울은 이 발언을 어떻게 시인 하는 것일까요?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깜짝 놀랄 발언입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보이는 것에 의해 행하는 것을 찬사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팩트를 좋아합니다. 무신론 과학자들은 적어도 현실적인 것들만 취급하려 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다룹니다. 과학자들은 양을 측정가능하고 수치를 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저는 과학자들을 '경험주의자들'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경험주의자란 실험과 관찰에 근거를 두고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몇 개의 수소원자가 물 분자 속에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중력의 힘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의 것들을 검사하고 무게를 재고 측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왜냐면 그 결과 우리는 발달된 의학과, 마취와 컴퓨터와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And yet Paul says, but we don't walk by sight. As though walking by sight was a bad thing. What does he mean? Well, don't be too alarmed. Paul isn't quite saying what you might think he's saying, or that I am making out that he is saying. He's not actually saying, Just close your eyes. This is what he means: To walk by sight, is to live as though this world is all that there is. As though what you see with your eyes is all there is to the world. To believe only in the material universe, that which can be seen, smelt, heard, felt. It is to believe, then, in a limited universe - a merely physical universe. And to have your values and your moral code and your whole way of life defined by this limited outlook. It is to rely only on your eyes, and to see nothing beyond. This is how people today live. This is how Australians live. This is how your neighbour lives. This is how you once lived, before coming to faith in Christ. They walk by sight alone. They believe only in the things that they can see. And there's something really wrong with that.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보이는 것에 의해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제가 그가 말한 것을 다루는 식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의 눈을 실제로 감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행함이란 마치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의 전부인양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사는 것입니다. 오직 보이고, 냄새를 맡을 수 있거나 들려지고 느껴질 수 있는 물질적 세상을 믿는 것, 이는 한정된 세계인 단순히 물리적 우주만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삶을 제한된 시야에 가둔 채, 여러분의 가치나 도덕적 행동지침,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보는 것만을 의지하여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는 호주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이웃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았던 방식입니다. 그들은 오직 보이는 것에 의해 행합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이 보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잘못된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The biggest problem is this - it rules out from the outset that God exists. I do not see God, therefore I cannot believe that He exists. At best, I'm agnostic. And I say at best, because at least it's a little bit honest. It says, I can't see God, therefore I do not know if he exists. At worst, I'm an atheist. I can't see God, therefore He does not exist. That's quite a leap of logic there. To walk by sight alone, is to exclude from the outset the spiritual realm, it is to exclude the existence of God, and it is to exclude there being any higher power that might possibly have some sort of impact and say on my life. There is no God; no Law; no real morality. What a stroke of luck that is! What a happy by-product of walking by sight alone. I am freed from outside rule. I can love whomever I like, or hate whomever I like. I can use whomever I like. I can hurt whomever I like.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인데요 - 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배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므로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호의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는 불가지론자야,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어도 약간은 정직하기 때문이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나는 그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 나쁘게 말하면, 나는 무신론자야.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여기에는 논리적 과장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행하는 것은 영적 세계의 시작부터 배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할지도 모르는 더 높은 능력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율법도 없고 진정한 도덕도 없다. 무슨 이런 뜻밖의 행운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런 보는 것으로만 행하는 데 따르는 행복한 산출물이 있겠습니까! 나는 바깥의 규칙으로 부터 자유하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누구든 좋아할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누구든 싫어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누구든 상처 줄 수 있다.

To walk by sight is the path of human autonomy, you see. It's the path of human arrogance and selfishness and pride. And I'm going to labour the point. People claim to walk by sight alone. But before we move on, do you know it's actually a lie. It's a fraud. There actually is no-one who walks only by sight. People claim it, but no-one can live like it. The atheistic scientist, the empiricist, is a fraud. The atheist scientist goes home from his day locked up in the laboratory. And I'm going to say it's a male scientist, just because I need to choose one or other. What does this male scientist go home to? A loving wife. A loving family. He comes in through the door, and gives his wife a kiss, and his children a hug. What on earth is going on there? It's a family that loves. It's a family that says to each other, we are important/valued. But what is love? That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seen. And the valuing of somebody descended from an ape makes no sense. In the merely physical world, none of this makes sense. By faith, you believe someone else is important. It takes faith to have love.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삶은 우리 인간이 자율적으로 따르는 부분입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과 자만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열심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으로 옮겨가기 전에 우리는 이것이 사실은 거짓말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실제로 한명도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무신론자인 과학자들도, 경험주의자들도 사기입니다. 그 무신론 과학자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작업실을 잠그고 집으로 갑니다. 제가 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저는 그를 남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집에 갑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 때문이죠. 그는 문으로 들어가 그의 아내에게 키스를 하고 그의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중요시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보이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원숭이에게서 내려온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세계에서, 이 모든 것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And then our scientist goes to bed, and sets his alarm to get up the next morning. But why does he think there's going to be a next morning? Why should he believe the sun will come up? Why does he believe that what has been will be again? Why should there be laws of nature? Why should he believe in an ordered universe? That's not sight - it is belief. It is faith, of sorts. Why does the scientist even believe that he thinks? After all, Darwin says. We evolved. It's all the chance arrangement of chemicals. Your brain is but a random chemical cocktail. Why would you believe that what's going on your head is actually this thing called thinking? Isn't it just chemical reactions? The empiricist, the evolutionist, the atheistic scientist is deeply inconsistent. Their sight is riddled with faith. And then there's all the data that the scientist chooses to ignore. The current science that our government is peddling in schools says that you get to choose your own gender. Decide for yourself. That, despite that fact that the chromosomal realities are clear - you are either male or female, even as Gen 1 says. But empirical data be hanged, we'll believe we want. We don't even follow the data that's staring us in the eyes right in front of us. No-one walks just by sight, and the apostle Paul is quite right to come out and say it. There's so much more going on in universe than just physicality.

그런 다음 우리의 그 과학자는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하지만 왜 그는 내일 아침이 올 거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는 해가 떠오를 거라고 믿을까요? 왜 그는 있어왔던 일들이 또 있을 거라고 믿을까요? 왜 자연의 법칙은 존재할까요? 왜 그는 질서가 있는 우주를 믿을까요?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신앙 같은 종류의 것이지요. 왜 과학자들은 그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일까요? 결국 다윈이 말하길, 우리는 진화 했다 합니다. 이는 화학 물질의 배치 가운데 나타날 가능성일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저 무작위의 화학 카테일일 뿐입니다. 당신의 머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왜 믿는 것일까요? 이는 그저 화학적 반응 아닌가요? 경험주의 과학자들과, 진화론자, 그리고 무신론적 과학자들의 모순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자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자료를 보게 됩니다. 현 우리 정부가 학교들 가운데 밀어붙이는 과학적 주장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영색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자이거나 여자일 수 있고, 더 나아가 Gen 1이라는 새로운 성별 또한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사실조차 무시한 채 말이죠. 그 누구도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옳게 지적하듯이, 우주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2. WE WALK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And so Paul says, secondly, we walk by faith. We see what others say they cannot see. The world thinks us mad, but we believe what others refuse to believe. We walk by faith.

Now be clear, it's not as though we Christians have closed our eyes to the physical world. Have we lost our heads in the clouds? Not at all. We don't have the slightest problem looking at the physical world.

And here are some of the things we see, that the world refuses to look at. John says,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have looked upon, and our hands have handled, concerning the Word of life—the life was manifested, and we have seen, and bear witness, and declare to you that eternal life which was with the Father and was manifested to us...' You see, we've got our eyes wide open.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그러므로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믿음에 의해 행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제 크리스천들이 물리적 세계에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정신이 몽롱하여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물리적 세상을 바라보는데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 보기를 거부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서 다루는 태초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았던 것, 우리가 우러러 보았던 것, 우리 손으로 다룰 수 있었던 것— 삶은 보이고, 우리는 보게 되고 증인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영생이 우리 앞에 펼쳐짐을 주장하게 되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We look at the world, and we see that the very Son of God has lived amongst us. We see the life and death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we see His resurrection as well. Or more accurately, we see the claim of those who were there, the testimony of the apostles and the first martyrs of the Church, and we accept their testimony. They have been our eyes for us. And we also look at the world, and we see the miracle of the Church – a worldwide phenomenon, a universal Church that has beaten the odds, that has survived despite persecution. We see it as the power of the risen Christ at world in this world. And what else do we see? We see the Word of God, the revelation, the very words, of God to us. We see the book, we see it beauty, it's unity, it's prophecies come true in Jesus. We see. Our eyes are wide open. We see this world better than anyone else. We don't close our eyes to the bits of history that we don't like. We don't have our heads in the clouds. The empiricist has his head in the sand. But we see the world rightly. We live in the real world.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부활을 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거기에 있었던 자들의 주장, 초대교회 성인들과 제자들의 증거를 보고 그들의 증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눈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보고 그 교회의 기적을 봅니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 박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그 기득권자들을 무력하게 했던 우주적 교회,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 책을 보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것은 연합이고 예수로 인해 진리가 된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봅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려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다 세상을 잘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역사의 조각들에 눈을 감지 않습니다. 우리는 몽롱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주의자들을 생각을 차단하여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And we believe. As well as seeing, we live by faith. We see the other world as well. We see more than just physical matter. There is the spiritual realm. There is God – the God, whom to be God, cannot be seen with eye. By definition, if He is God, He cannot be seen with the eye. And it's God Himself who given us the knowledge of Himself. He has brought us to see/believe. And so we walk, we live our lives, trusting in Him. We have faith in Him, and in His Son,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re's so much more that we believe, then. We believe in God; we believe in His Son. But there's more that our eyes can't see. Look at the context of 2 Cor 5. This is what we believe – we believe that there is a new world coming. We believe in the return of the Son of God, and in the very real resurrection from the dead. We cannot see it, we but read it in the Word, and we believe it. And we believe that even when we die, our souls are immediately safe in the arms of Jesus. We don't cease to exist, but we're safe with him. 2 Cor 5:6-8: 6 Therefore we are always confident (bold), knowing that while we are at home in the body we are absent from the Lord. 7 Because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8 And we are confident, yes, well pleased rather to be absent from the body and to be present with the Lord. He's talking about death. We're then present with Him. That's what we believe. We read it, and we believe it. This is the faith by which we walk.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보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까지 봅니다. 우리는 단지 물리적인 것 이상을 봅니다. 영적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정의에 의한다면 만약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는 눈으로는 볼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에 관한 지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입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 우리는 새 세상이 오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우리가 죽은 자들의 실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지만 성경에서 읽었고 그리하여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이 안전하게 즉시 예수님의 팔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존재함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 안에 안전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는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와 함께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3. THE EFFECT OF FAITH 믿음의 영향

Finally, what does this all mean? We've spoken about philosophy and science. We've used words like 'Empiricism'. Maybe you don't understand what we're talking about. What does all this mean for me? Break it down for me.

Let's do that now. What does it all mean for you? What it means is this. Paul is drawing a distinction between two ways of living. There's a miserable way of living, and there's a confident, bold, victorious way of living. How's that for simple? Do you want to be miserable, or confident and bold in life? These are the very real implications of what Paul is talking about.

Do you want to be miserable? Then walk (or claim to walk) by sight alone. If you walk only by sight, you'll be miserable, or you ought to be miserable. Why?

Because if you only see this world, and nothing more - what do you see? You see all the evils of this world. You see terrorist bombings and gang attacks and atrocities and whatever else has been on the tele in the last week. You see violence and hatred. And you might see some happier things, but what does it matter? It all has no meaning. It all has no resolution. And ultimately, this is what you see: the body rotting in the grave. And that is it. That is all there is. This is Hopelessness. This is depression. Is that the kind of life you want? If you walk by sight, then if you're being consistent, you should be the most miserable of people. Your life has no meaning. no hope, you spend your life battling fear and anxiety, and fending off the attacks of people all around you, and there's no point to it.

마지막으로 이는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철학과 과학에 대해 얘기 했고, '경험주의'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내용이 나에게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바울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구분 짓고 있습니다: 비참한 삶, 그리고 확신, 대담한 승리를 거둔 삶. 당신은 비참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확신과 대담한 삶은 원하십니까? 이들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매우 실질적인 결과입니다.

당신이 비참한 삶을 원하신다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르십시오. 만약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른다면, 당신은 비참해 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만 볼 때, 무엇을 보게 되나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악을 보게 됩니다. 테러리스트들의 폭탄 테러와, 갱단의 공격과 잔혹함, 그리고 지난주 텔레비전을 통해 여러 뉴스들과 같은 일들요. 폭력과 증오를 보게 되고, 때로는 기분 좋게 해주는 뉴스를 접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덤 가운데 썩어져 가는 우리의 몸. 이것이 전부이며, 이것이 절망이며, 이것이 암울함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이러한 삶인가요? 만약 당신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면, 당신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의미도 없으며, 소망도 없고, 당신의 삶을 두려움과 불안함과 싸우며 살아가고, 주변의 사람들의 공격과 싸우는, 그런 의미 없는 비참한 삶요.

I have a favourite quote from a French philosopher. At least he had the guts to be honest. Jean Paul Sartre said this: 'Man is an empty bubble, floating on a sea of nothingness.' We're adrift at sea. Do you want to be miserable today - then live by sight alone. But then there is walking with faith. What difference does this make to your life? What is the value of this for you? How does it change you for the better? There is a God. There is meaning. There is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How does this change you in your day to day life? You, of all people in the world, are the most confident and secure. You believe that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You believe that whatever happens, good or bad, even if terrorists manage to blow up the whole world up, that we will be raised from that. You, of all people in the world, are the most confident.

프랑스 철학자가 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라도 있었습니다. Jean Paul Sarte는 말하기를 '사람은 공허의 바다위에 떠있는 비어있는 거품이다' 우리는 바다 가운데 표류합니다. 당신은 오늘 비참해 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가져 올까요? 이러한 삶이 당신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나요? 이러한 삶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보다 낫게 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계시고,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으로 부터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 시킬까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확신과 안전함 가운데 있음을 의미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테러리스트가 세상 전체를 날려 버릴지라도, 이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워 질 것임을 믿는 것이며, 당신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That's what Paul says here in 2 Cor 5. Paul says, We have such boldness. We have such confidence, v. 6, v. 8. We have such boldness, because of our faith. Faith makes all the difference. Do you want to live a confident life today? Faith is the key – faith in the Son of God. Faith that God raises the dead. That knowledge works its way into every nook and cranny of your life. It pervades your day to day activities and interactions with people. It gives you a quiet calmness. It gives you the assurance that all is right with the world, no matter what takes place. Even as the Government teaches kids in schools how to be perfect little pagans.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가운데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 (6절, 8절).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 가운데 있음은 우리의 믿음 때문인 것이며,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날 확신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바로 그 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믿음.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과 사람과의 관계가운데 스며들고,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고,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던, 모든 것이 괜찮다는 확신을 줍니다. 정부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불신앙의 길을 가르친다 할지 라도요.

Even as we see the last remnants of a Christian society sliding away. All is right with the world. Ours is still the victory through faith. Faith is your armour, isn't it. Armed with this, you can get through anything in this world. Whatever it is that this world throws at you – even if we do get to persecution here in Australian – whatever the trials of this life are that you have to go through – you stand secure. You know that nothing can undermine God's plan for you. You don't even mind if you should die. That's no big deal any more. Facing the lions – that's no big deal. Paul says, we're well pleased to be absent from the body but present with the Lord. I'd rather be with Him than living here. That's your confidence. That's your victory.

There's an old hymn. It's not a particularly great hymn, and it's not in Rejoice, so we're not going to sing it. But it just puts it so simply.

*Sing the wondrous love of Jesus, Sing His mercy and His grace.
In the mansions bright and blessed, He'll prepare for us a place.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That's our faith. That's confident life

우리가 마지막 남은 기독교 사회로서 점점 쇠퇴해 진다할지라도, 모든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병기입니다, 그치요? 이걸로 무장 하십시오, 당신이 여기 호주에서 박해를 받을 지라도,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을 지나더라도, 당신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해쳐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확고히 설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쇠퇴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죽음 또한 그리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자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부터 떠나게 되고 주님의 품에 있는 것에 매우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기보다는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며,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기 좀 오래된 찬송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 훌륭하지 않은 찬송가일수 있고, Rejoice 찬송가에 없기에 이 찬송을 부르지는 않을 거지만, 여기서 가사가 매우 명료하게 쓰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래해 놀라운 예수의 사랑, 노래하자 그의 자비와 은혜
밝고 축복받은 저택으로, 그가 우리 거쳐 준비하리
우리 천국에 모두 이를 때, 어찌나 좋고 기쁜 날일지
우리 모두 예수 보는 날, 노래하며 승리를 외치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확신입니다.

-끝-